

# 원전 도입 37년만에...중·저준위 방폐장 준공

### 경주 방폐장...200ℓ 짜리 드럼통 10만개 저장 규모

### 영광 한빛원전 등 저장 폐기물 선박·트럭 이용 운반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가 도입된지 37년 만에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 준공됐다. 정부는 지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확보를 추진했으나 정부 정책판단 실패와 주민 설득 실패가 맞물리면서 19년간 9차례나 건설이 무산됐다. 이번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준공되면서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핵연료를 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최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인 경주 방폐장이 지난달 28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978년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이래 37년 만에 들어선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와 각종 연구 시설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곳이다.

원전에서 발생한 폐 펠라, 농축 폐액과 작업자가 사용한 덧신·장갑·작업복 등이 처분 대상으로, 대체로 방사능에 약하게 오염된 폐기물이라는 게 원자력환경공단 측 설명이다. 이들 폐기물은 200ℓ 드럼통에 압축해 넣은 다음, 130m 길이의 동굴 처분장(지하 사일로)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관된다.

방폐물이 처분되는 6기의 지하 사일로의 규모는 높이 50m, 내부 직경 23.6m, 두

께 1~1.6m이며, 리미터 규모 6.5의 강인에도 견딜 수 있는 원통형 구조로 돼 있다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설명했다.

영광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임시 저장고에 보관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전용 선박과 트럭을 이용해 경주 방폐장까지 운반된다. 앞서 지난 2010년 12월 한울원전에서 나온 방폐물 1000드럼이 반입됐으며, 지난 7월 13일 처음으로 방폐물을 지하에 처분했다.

경주 방폐장은 정부가 1986년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나 정부 정책 판단 실패와 주민 설득 실패 등으로 무려 9차례나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05년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주가 방폐장 건설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200ℓ 짜리 드럼통 10만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총 1조 54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편, 이번에 준공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별개로, 원자력에서 타고 남은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빛원전에는 지난 4월 말 기준, 5486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30년 이상 임시 보관 중인데 오는 2024년 이번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28일 준공된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내부 하역동굴 모습. 한빛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경주 방폐장 지하 사일로(처분장)로 보관되기 전 하역동굴을 지나게 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 폐가구 현관앞까지 와서 가져 갑니다

### 순천시 등 전국 5곳 '문전 수거' 서비스 시범 실시

무겁고 큰 가구를 버릴 때 집 앞까지 수거원이 와서 가져가는 '문전 수거' 서비스가 도입된다. 순천시 등 전국의 일부 중소 도시가 우선 시작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수거해주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해당 지자체는 순천시, 세종시, 용인시, 밀양시, 양산시 등 5개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수거·운반 체계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순천시는 다음달부터 도입되며 이미 용인시는 2013년 2월부터, 세종시(8월·

전동면)와 밀양시(7월·5개 동)는 시내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서비스 지역, 품목, 대상, 비용, 내용 등을 정해 추진한다. 기존 방식(거점 수거)에서 지자체에 예약한 뒤 배출자의 현관문 앞(희망시 집 안)으로 가는 방식(문전 수거)으로 개선하는 사항은 공통으로 도입한다. 순천시는 사회 취약 계층에 한해 스티커 비용을 면제한다. 환경부는 연말에 지자체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시안화나트륨·수소 취급 사업장

### 환경부, 600여곳 한달간 특별점검

환경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유해화학 물질인 시안화나트륨·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시안화나트륨·시안화수소 취급 사업장 400여곳과 소규모 소분업체 200여곳 등 총 600여곳이다.

소분업체는 고농도 물질을 희석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많은 양을 잘게 나눠 판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업체 규모에 비해 취급량이 많아 사고시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해화학 물질 영업 허가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12일 중국 텐진(天津) 폭발사고로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가 다량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

을 계기로 국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28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항만과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는 전기 도금, 연료, 안료, 금속광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한다. 시안화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독가스 성분인 시안화수소가 생성된다. 두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급성 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사고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 대비물질'로 지정돼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지리산 반야봉 등 국립공원 표지석 38개 교체

### 경관 해치는 비석형→자연석형으로

### 지리산 천왕봉 등 20곳 등산로 정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던 국립공원 정상 등에 설치돼 있던 표지석 30여개가 교체되고 정상부 주변도 세단정됐다.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부터 전국 국립공원의 산 정상부 108곳을 점검해 자연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정상 표지석 38개를 교체했다.

표지석의 유형은 자연석형 50곳(46%), 비석형 30곳(28%), 말뚝형 25곳(23%), 기타 3곳(3%) 등이다. 이 가운데 58곳에 경관을 해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표지석이 세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우선 지리산 반야봉, 계룡산 관음봉 등 38곳의 비석형·말뚝형 표지석 등을 자연석형으로 바꿨다. 비석형과 말뚝형은 묘지 비석을 연상시키는데다, 주변의 바위나 돌과 재질이 달라 생동맛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나머지 20곳은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지리산 삼도봉 등 14곳의 표지석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협의 거쳐



지리산 반야봉 교체전 표지석.

개선하기로 했다. 북한산 내 원효봉·용혈봉 등 6곳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정표로 대체한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패산 등 15곳에는 자연석으로 된 정상표지석을 새로 세워 정상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노면이 훼손된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등 20곳의 표지석 주변 등산로도 정비했다.

정상 표지석 정비는 공단이 2009년 일제 잔재 청산 차



지리산 반야봉 교체후 표지석.

원에서 속리산 최고봉인 '천황봉(天皇峯)'을 '천왕봉(天王峯)'으로 개명해 표지석을 바꾼 후 6년 만이다.

공단은 표지석 정비를 하면서 정상 주변부도 손봤다. 정비한 20곳은 그간 탐방객의 잦은 방문과 강우 등으로 인해 등산로 등의 노면이 훼손됐으나 이번 정비를 계기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재활용 실천! 자원순환 실현!

### 영산강환경청 '자원순환의 날' 환경 캠페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자원순환의 날(6일)'을 맞아 2일 광주·전남지역 대형 마트에서 자원순환 환경 캠페인을 연다.

이번 캠페인은 '재활용 실천! 자원순환 실현!'이라는 주제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가 함께 준비했다.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을 실천하고자 2009년 환경부에서 지정된 날이다. 캠페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롯데마트 수완·나주·목

포·여수·여천점, 이마트 순천점, 홈플러스 광양점 1층 출입구나 고객센터 옆 특별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행사장에서 재활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스티커를 붙이는 참가자에게는 장바구니를 나눠준다.

행사장에서는 재활용 우선 품목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도 병행, 환경 기호 자료로 활용한다. 이희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들이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 (보 1천, 용 4천5백만)

② 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 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2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업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5천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직접 운영시 1800만**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건물 올 리모델링!**

매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